

아버지교육 참여자 경험을 통해 살펴본 아버지교육의 의미

권혜진*

The Meaning of Father's Participation Experiences in the Educational Program for Fathers

Kwon, Hye Jin

본 연구는 아버지들의 아버지교육 참여 경험을 탐색해 봄으로써 아버지교육의 참여 의미와 효과를 파악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 아버지교육 참여 경험이 있고, 교육 참여에 적극적이며, 아동기와 청소년기 자녀를 둔 아버지 3명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연구 자료는 연구참여자를 심층 면접하여 수집되었고 면접내용을 녹음한 후 전사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버지들의 내면에는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은 마음, 아버지 역할에 대한 고민이 자리하고 있었지만 수동적인 아버지 역할을 하고 있었다. 둘째, 아버지들은 교육 참여가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자녀와의 관계, 배우자와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하였다. 셋째, 아버지들은 현실적 여건상 교육 참여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고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을 마련해주고 아버지들의 상황에 맞고 현실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교육내용과 방법으로 아버지교육이 이루어지길 희망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아버지교육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 주제어 : 아버지교육, 참여 경험, 아버지 역할

* 제1저자(교신저자) : 나사렛대학교 아동학과 부교수, jini2005@kornu.ac.kr

I. 서론

아버지가 자녀의 건강한 성장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많은 연구들을 통해 확인되었으며, 사회적으로도 아버지 역할에 대한 재조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전통적으로 아버지에게는 가계부양자로서 도구적 역할이 요구되었으나, 이제는 여기에 더하여 자녀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정서적으로 지지해주는 표현적 역할에 대한 요구도 강해지고 있다.

아버지들은 아버지 역할에 대한 시대적 변화를 인지하면서도 실제로 새롭게 요구되는 아버지 역할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수행해야할지 모르거나 현실적인 여건 때문에 역할 수행에 어려움과 갈등을 겪고 있다. 현대의 아버지는 전세대의 아버지에 비해 아버지로서 자녀양육이나 교육에 과거보다 많은 참여를 요구받고 있는 동시에 여전히 전통적인 부양자 역할에 대한 책임과 기대 역시 강력하게 받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자녀양육에 참여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이숙현, 권영인, 2009). 아버지들은 시간적, 정신적 여유가 부족하여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이 적고 자녀의 교육이나 인성, 정서적인 면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자신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아버지상과 현실적인 자아상(전연우, 조희숙, 2013) 사이에 괴리를 경험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아버지들은 아버지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사회화과정에서 거의 학습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어머니들과는 달리 부모가 되기 이전에 영유아들과의 경험이 거의 없다. 자녀가 출생한 이후에도 어머니들과는 달리 일상적 돌봄을 통한 자연스러운 접촉과 애착형성 기회가 부족하여 자녀와의 친밀한 관계 형성이 쉽지 않다. 바람직한 아버지 역할에 대한 인식과 달리 아버지들의 실제적인 양육경험은 아직 미흡하고 양육방법에 대한 지식도 부족하다. 거기다가 이러한 역할을 학습할 기회가 없음으로 해서 대부분의 아버지들이 아버지로서 역할수행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한 실정(송혜림, 박정윤, 고선강, 김유경, 권혜진, 2010; 이슬기, 전귀연, 김수경, 2007)이다.

아버지교육 관련연구들은 아버지교육이 아버지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기대 변화와 자녀양육에 대한 아버지의 실제 행위간의 차이를 좁힐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주요 연구결과들을 살펴보면 아버지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버지들은 적극적인 아버지 역할에 흥미를 느끼고 양육스트레스가 감소했으며(McBride, 1991), 아버지의 양육활동 참여수준이 더 높아졌고(Taskin & Erkan, 2009) 아버지-자녀관계가 긍정적으로 변화하였고, 양육자신감이 높아졌으며(권기남, 2012), 자녀들의 행동문제 발생이 감소

되었다(Helfenbaum-Kun & Ortiz, 2007). 또한 아버지교육을 받은 후 일-가정 균형에 대한 인식도 개선(송혜림 등, 2010)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아버지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힘입어 최근 국내외에서 아버지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실시가 활발해지고 있다. 어머니를 대상으로 했던 부모교육을 아버지에게 적용하여 프로그램을 실시했던 것에서 벗어나 최근에는 어머니와는 차별화된 아버지의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 시도가 활발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아버지교육 프로그램은 영유아교육기관을 중심으로 한 아버지참여수업이나 자녀양육에 관한 아버지교육이 주로 운영되고 있고(홍길희, 황정해, 2006), 최근에는 기독교적 아버지 상과 아버지의 권위회복을 강조하는 두란노 아버지학교(박우희, 2004)나 한국지역사회교육협회의 ‘좋은 아버지 교실’,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아버지교육프로그램 등 시민단체와 지역사회기관을 중심으로 아버지교육이 점차 활성화되고 있다(강기정, 이윤정, 2010; 서은주, 2012). 최근 아버지교육은 자녀양육에 관한 내용뿐만 아니라 남성으로서 아버지됨의 의미, 자녀와의 관계 향상, 부부관계 개선, 일-가정양립 및 양성평등 등으로 그 내용이 확장되고 있다.

아버지 교육방법에서도 변화가 나타나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웹에 기반한 아버지교육이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권기남, 2012). 또한 강의 위주가 아닌 활동 위주로 구성하여 참여대상자의 공감대 형성, 자발적 학습, 실생활화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고 있다(강기정, 이윤정, 2010). 남성 직장인을 대상으로 기업을 방문하여 직장가정에서의 역할을 조화롭게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아버지교육을 실시하는 등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서은주, 2012). 또한 1회성 교육이 아닌 다회성 교육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경우(강기정, 이윤정, 2010; 권기남, 2012)가 점차 많아지고 있다.

아버지 교육과 교육참여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관련 연구들도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아버지교육에의 참여가 아버지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파악하고자 하는 시도는 아직까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아버지 교육 관련 연구들은 설문조사 중심의 양적 연구를 통해 아버지교육에 관한 요구를 조사(김진희, 정희연, 2005; 홍길희, 황정해, 2006)하거나 아버지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제안(신용주, 2009; 장재홍 등, 2000; 홍길희, 황정해, 2007)하는 데 그치고 있다. 아버지교육을 실시하고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한 연구들(강기정, 이윤정, 2010; 권기남, 2012)의 경우에도 개발자의 관점에서 프로그램의 효과를 파악하고 있다. 연구자가 선정한 항목에 아버지들이 응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설문조사나 연구자 관점의 효과검증 연구는 연구자의 관점에 근접한 아버지들의 일반적 인식이나 효과를 조사할 수 있으나 살아있는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아

버지들의 구체적인 목소리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아버지교육 참여자의 관점에서 아버지교육에 대한 요구와 경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아버지교육 프로그램이 주로 영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들을 주요대상으로 하고 있어서(권기남, 2012; 김정원, 김유정, 2007; 홍길희, 황정해, 2006), 아동기와 청소년기 자녀를 둔 아버지들의 교육에 대한 요구나 경험으로 관심이 확장될 필요가 있다. 자녀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일상적 돌봄활동이 감소하고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이 줄어들면서 오히려 자녀와의 갈등이 높아지고 자녀와의 친밀한 관계형성이 좀 더 어려워지는 점(김진희, 정희연, 2005; 장재홍, 김태성, 김현주, 이호준, 2000; 송혜림 등, 2010)을 감안해보면 아동기, 청소년기 자녀를 둔 아버지들을 대상으로 하는 아버지 교육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는 아버지 교육 참여 경험이 있는 아동기와 청소년기 자녀를 둔 아버지들이 아버지교육의 필요성에 대하여 어떻게 느끼고 있으며, 아버지 교육 과정에서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지 그리고 교육 참여 후 아버지교육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탐색하여 그들의 경험을 심도깊이 이해하고자 한다. 위와 같은 연구 목적에 따라 연구문제를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버지들은 아버지교육에 어떤 마음으로 참여하게 되었는가?

둘째, 아버지들은 아버지교육에서 어떤 경험을 하였고 이를 통해 어떠한 변화를 경험하였는가?

셋째, 아버지교육 참여에서 경험한 어려움과 바람은 무엇인가?

II. 연구방법

1. 연구참여자

연구참여자들은 필수적으로 연구될 현상을 경험하고, 그 현상을 경험한 사람들을 대표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질적 연구의 의도적 표본추출전략에 의해 연구참여자들을 선정하였다(김윤옥 등, 2009). 본 연구목적을 위해 아버지교육 참여가 개인에게 체험적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 아버지교육에 여러 번 참여한 경험이 있고, 교육 참여에 적극적이고, 아동기와 청소년기 자녀를 둔 아버지들을 연구참여자 선정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연구자는 아버지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여러 기관을 통해 선정기준을 만족하는 연구참여자 3명을 소개받았다. 아버지A는 중학교 1학년 딸, 초등학교 6학년 딸과 6세 아들이 있고, S건강가정지원

센터에서 진행한 아버지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S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진행한 아버지교육은 아버지와 남성으로서의 정체감 개선, 아버지와 자녀관계 개선, 부부관계 개선을 목표로 15가족이 참여하는 연간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었고, 강의와 함께 체험활동, 집단 상담 등 다양한 활동 방법을 결합한 통합적 접근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었다. 아버지A는 1년 동안 진행된 교육에 거의 빠지지 않고 참여하였다. 아버지F는 중학교 1학년 딸, 초등학교 4학년 아들, 초등학교 1학년 아들이 있고 지역에 있는 도서관에서 진행된 8회기 아버지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지역도서관에서 진행한 아버지교육은 나는 어떤 아버지인가, 행복한 나, 새로운 아버지, 부부가 중심인 가정을 만들자, 자녀와의 대화 등과 같은 ‘아버지로 살기’에 대해 교육에 참여한 아버지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아버지F는 8회기 교육에 모두 참여하였다. 아버지 G는 초등학교 1학년 딸과 5세 아들이 있고, 출퇴근 시 자신의 직장 내에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에 5세 아들을 등하원 시키고 있었다. 아버지 G는 직장어린이집에서 실시하는 아버지교육 프로그램에 2회 참여하였다. 직장어린이집에서 실시한 아버지교육은 E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진행한 ‘찾아가는 아버지교실’과 연계하여 이루어졌다. 아버지교육은 아버지역할의 중요성,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인식, 육아 파트너십, 가정에서의 나의 역할, 자녀와의 놀이, 아빠와 엄마의 스킨십 등에 관한 내용이 강의와 함께 간단한 체험활동들이 함께 이루어졌다. 연구참여자의 인구학적 특징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참여자의 인구학적 특징

연구참여자	연령	직업	배우자 취업여부	자녀수/연령
아버지 A	44세	자영업	전업주부	여아(중1), 여아(초6), 남아(6세)
아버지 F	45세	회사원	전업주부	여아(중1), 남아(초4), 남아(초1)
아버지 G	37세	회사원	맞벌이	여아(초1), 남아(5세)

2. 연구절차 및 자료분석

연구자는 연구자참여자 면접을 통해 연구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참여자 면접은 2012년 1월에서 2월 사이에 아버지교육을 실시한 기관의 상담실이나 조용한 공간에서 연구참여자 퇴근이후 진행되었고 면접시간은 개인당 1회씩 평균 1시간 30분정도 소요되었다. 연구참여자가 면접에서 사용된 반구조화된 면접질문은 다음과 같다.

- 아버지교육에 어떻게 참여하게 되었습니까?
- 아버지로서 부족하다고 느끼는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 아버지교육에서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해보았습니까?
- 아버지교육 중에서 어떠한 점이 도움이 되었습니까?
- 아버지교육 참여 후 변화된 점이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 아버지 교육 참여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 어떠한 것입니까?
- 아버지 교육을 받으면서 아쉬웠던 점이나 바라는 점이 있다면 어떠한 것입니까?

면접내용은 연구참여자들의 사전 동의를 구한 후 녹음되었으며 녹음된 정보가 연구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과 익명이 보장된다는 점을 확인시켜주었다. 모든 면접내용을 전사하였고 전사된 연구자료를 계속 읽으면서 자료 속에 내재된 주제를 찾아내는 과정인 개방코딩을 통해, 자료로부터 아버지교육 참여 경험이 가지는 의미들을 추출함으로써 연구의 결과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기초적인 정보를 얻고자 하였다. 개방코딩은 미리 개발된 코딩목록에 따르지 않고 분석적 귀납 방법을 통해 자료 속에 함축된 의미에 맞는 주제나 용어를 연구자가 직접 찾아내거나 만들어 내는 방법이다(김영천, 2008). 개방코딩을 통해 다양하고 다각적인 측면에서 아버지교육 참여 경험의 의미를 여러 주제어로 정리하였으며, 개방코딩에서 얻어진 범주를 바탕으로 각 범주간의 관계를 재구성하고 정리하는 과정을 통해 자료가 제시하는 내용을 핵심적으로 압축 할 수 있는 용어를 선정하였다.

연구자는 연구의 내적 타당도와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자료수집방법, 다양한 자료 원천을 활용하는 삼각측정(triangulation)을 실시하였다. 연구참여자 면접이외에도 교육 실무자 2명을 면접하여 연구참여자들의 면접 자료를 해석하는데 참고하였다. 실무자 A는 1년간 S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1년간 15가족이 참여하는 가족교육사업 및 아버지교육 사업을 진행하였다. 실무자 B는 E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어린이집, 기업, 공공기관으로 찾아가는 아버지교실 사업을 진행하였다. 아버지교육이 진행되는 현장에서의 비형식적 관찰, 교육평가 설문지 등과 같은 교육과 관련된 문서 및 사진자료 등 부가적인 자료를 수집하여 연구참여자의 면접내용을 해석하는데 참고하였다. 연구자는 연구의 내적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자료와 잠정적인 해석을 자료를 제공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해석이 타당한지를 물어보는 절차인 연구참여자 점검을 실시하였고(Merriam, 1998), 잠정적인 결과를 동료에게 보여주고 비평을 참조하는 동료 검증을 실시하였다(Lincoln, & Guba, 1985).

Ⅲ. 연구결과 및 해석

아버지교육에 참여한 아버지들의 참여 경험의 내용을 정리한 결과 그 의미는 ‘아버지 역할에 대한 고민’, ‘아버지교육 참여 후 경험한 변화’, ‘아버지 교육 참여의 어려움과 바람’으로 정리되었다.

1. 아버지 역할에 대한 고민 : “맞는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아버지들의 내면에는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은 열망이 있었다. 그렇지만 주체적인 아버지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잘 모르기 때문에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아버지상과 현실과의 괴리를 경험하고 있었다. 아버지 역할을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해 자신감이 부족하였고 자녀양육에 대한 경험과 교육 기회도 부족하였다. 그러다 보니 어머니들이 정해주는 역할을 수동적으로 수행하는 경향이 있었고, 아버지 교육에 참여하게 된 계기도 어머니의 교육 참여 권유에 의한 것이었다.

1) 이상적 아버지상과 현실의 괴리

아버지들은 ‘자신의 아버지와는 다른 아버지’, ‘같이 호흡할 수 있는 아버지’, ‘문제를 같이 해결해줄 있는 아버지’가 되길 원하였다. 이런 모습들은 아버지들이 원하는 아버지상 1순위로 ‘친구 같은 아버지’를 꼽고 있는 최근 연구결과들(김정환, 2012; 김혜영, 황정미, 선보영, 김동기, 2008; 송혜림 등, 2010)과 다르지 않았다.

“내가 내 아버지와 다른 아버지가 되려고 하지만 내가 내 아이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지 못할지 몰라도 내 아이만큼은 자기 자녀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애들은 학생 때 자기 아버지를 싫어하지 않게끔 해주고 싶고. 나이 들어서 존경받으면 뭐하겠어요. 조금이라도 젊을 때 같이 호흡하고” (아버지F)

“그렇게 시간을 많이 보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크면 점점 자기가 해야 할 일도 많아지고 학교에 있는 시간도 늘어나고. 그래도 계속 자라는 중간 중간에 잘 자라고 있나 모니터링도 해주고 싶고 문제가 있으면 같이 해결하고” (아버지G)

아버지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아버지는 ‘내 아버지와는 다른 아버지’, ‘존경받는 아버

지’, ‘친구같은 아버지’등과 같이 그 의미는 조금씩 다르게 나타났지만 이를 실현하는 것은 어렵다고 느끼고 있었다. 그러면서 자녀교육이나 자녀의 성장과정에 함께 하지 못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었다.

“존경받는 아버지, 친구 같은 아버지, 거의 대부분의 아빠들은 다 그런 아버지를 상상하고, 그런 아버지가 되고 싶어서 나왔는데. 아이를 어느 정도 키워놓고 보니까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느껴서” (아버지F)

“친구 같은 아빠, 존경받는 아빠가 어려운 게 당장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우리 아버지의 비슷한 모습이 나가고 나중에 제가 또 돌아보게 되죠. 아 내가 왜 그랬지? 막 이러면서 그거에 대한 답을 못 찾는 거죠.” (아버지 A)

아버지들은 ‘경제적으로 유능한 아버지’이면서 동시에 ‘친구 같은 아버지’로 살고자 하지만(조형숙, 김지혜, 김태인, 2008) 이는 쉬운 일이 아니다. 아버지들이 대부분 직장생활에 요구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자녀와 함께 할 시간마저 부족하다(김낙홍, 2011; 장재홍 등, 2000). 그래서 아버지들은 자신을 옛날 아버지들과는 다른 현대적 아버지’이고자 하나 현실적으로는 ‘가족에게 내 마음같이 못해주는 아버지’, ‘아직 성공하지 못한 아버지’, ‘의무와 책임감 속에서 고독한 아버지’, ‘가족의 행복을 위해 희생하는 아버지’로 인식(전연우, 조희숙, 2013)하면서 이상적 아버지상과 괴리를 느낀다.

2) 아버지 역할에 대한 자신감 부족

아버지들은 아버지로서 역할을 한다고 하지만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신 없어 하였다. 친구같은 아버지, 자녀의 마음을 잘 이해하는 아버지가 되고 싶지만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럽다고 했다.

“아버지로서의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나, 혹은 내가 잘하고 있나? 확인하고 싶은 마음, 내가 부족한 점이 있는지? 내가 고쳐야 될 점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 자식들에게 정말 제대로 된 아버지가 되고 싶었다는 그 부분은 맞는 것 같아요.” (아버지 F)

“아버지들이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어떤, 우리는 어렵듯이만 알지 구체적인 아버지가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는 잘 모르잖아요.” (아버지A)

“애랑 어떤 것을 해줘야 하나? 놀 때, 주말에 뭘 해줘야 하나? 주말에 데리고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가끔 아이랑 어떤 걸 했으면 좋을지 모를 때가 있어요. 뭘 해도 더 괜찮은 걸 해주면 좋은데 뭘 해줘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아버지G)

“아빠가 아이들과 대화나 여러 가지 책을 하나를 보더라도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다 엄마한테 떠맡기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솔직히 고민이 되다 보면 교육에 깊이 관여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역할을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거든요.” (아버지A)

아버지는 용돈주기, 운전하기 등과 같은 도구적 역할을 주로 수행하고 있었고, 아버지들 스스로도 이러한 도구적 역할 수행에 대해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다. 아버지들의 경우 양육참여 경험이 적고 자녀와의 상호작용 기회가 적어 자녀의 요구에 대한 대처능력이 떨어지면서 아버지 역할에 대한 자신감도 부족하여(Rogers & White, 1998), 더욱 더 자녀와의 상호작용에 어려움을 겪는다.

“아이가 어릴 때는 그래도 씻기고 재우고 이런 일이라도 했는데, 아이가 점점 크니까 아버지로서 해 줄 일이 없어요. 대화 자체가 힘들어요.” (아버지F)

“초등학교 때부터는 거의 아빠들이 할 일이 없다고 하던데. 주로 학원을 많이 다녀서 학원을 데려다 주는 일, 주로 운전사기사죠!” (아버지G)

“딸의 입장에 서서 들어줘야하는 게 뭔지 모를 때도 있고 뭐 어떨 때는 어떻게 이야기 해야 되는지, 어떻게 들어줘야 하는지,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좀 애매한 때가 많이 있어요.” (아버지A)

자녀가 성장하면서 신체적 돌봄의 필요성이 줄어들게 되면서 아버지들은 더욱 더 자녀에게 해 줄 수 있는 자신의 역할에 대해 자신감이 없어지고 어려움을 느낀다고 하였다. 아동기와 청소년기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성장 발달하는 시기로 많은 심리적 갈등과 적응상의 문제를 안고 있는 시기로 단순한 돌봄을 넘어서는 아버지 역할이 요구된다. 그러나 자녀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아버지의 양육행동은 감소하고(송혜림 등, 2010; 장재홍 등, 2000), 아버지들의 역할효능감 역시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아동기와 청소년기 자

녀를 둔 아버지들은 아버지 역할 수행에 더 어려움을 느낀다. 특히 딸과의 상호작용에는 더욱 더 어려움을 느낀다고 호소하였다. 아버지교육에 대한 요구도 조사연구(홍길희, 황정해, 2007)에서도 딸을 가진 아버지들의 교육요구도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아버지들이 이성자녀의 양육에 어려움을 더 느낀다는 것을 보여준다.

3) 자녀양육에 대한 경험과 교육 기회부족

아버지들은 좋은 아버지가 되어야겠다는 막연한 열망만 가지고 있을 뿐이었다. 아버지들은 성장과정에서 돌봄에 대한 경험도 부족하고 자녀양육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기회도 거의 갖지 못하였다.

“무작정 그냥 애랑 놀아주는 책읽어주고 놀고 시간을 같이 보내면 되지 않겠나. 따로 전문적인 교육은 생각 안 해봤었어요.” (아버지G)

“그런 기회가 없으니까, 아빠들이 할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으니까, 너무 어떻게 보면 부족한 거죠.” (아버지A)

아버지들에 비해 오히려 어머니들이 가족 또는 아버지를 위한 다양한 교육 및 참여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더 많이 인식하는 것(김낙홍, 2011)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어머니들이 가정에서 아버지들의 역할 수행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을 드러낸다. 아버지들은 아버지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양육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나 접근성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부족하였다.

4) 수동적인 참여

그러다보니 아버지들은 주체적으로 아버지 역할을 하기 보다는 수동적으로 ‘엄마들이 짜논 계획에 아빠는 도와주는 정도’의 아버지 역할을 하고 있다. 아버지들은 어머니들처럼 정보교류를 할 만한 네트워크도 없고 ‘아버지들끼리 서로 이야기도 안하고 정보도 없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마음은 있는데 여건은 안 되는’상황이고 자녀들의 성장과정에서 아버지로서 주체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내가 가정 내에서 해야 되는 아빠의 역할이라는 게 단순히 돈 벌고 가끔 주말되면 차 드라이브해주고 쇼핑갈 때 따라가고 애들 용돈 달라고 하면 용돈 주고 그런 역할에 머

물렀다고 하면 머물렀구요” (아버지A)

“엄마들끼리는 정보 공유도 많이 되고 많이 아니까. 저도 그렇고 주위에서 봐도 그렇고 엄마들이 짜 놓 계획에 아빠는 도와주는 정도. 엄마가 이것 이것 해주었으면 좋겠다 하면 해주는 정도” (아버지G)

아버지들의 경우 아버지 교육에 대한 정보도 부족하고 적극적으로 탐색하지는 않았다. 주로 부인이 아버지 교육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되어 자신에게 알려주고 교육 참여를 권유하여 참여하게 되었다고 해서 교육 참여에서도 아버지들의 수동적인 모습이 나타났다. 아버지교육에 아버지 스스로 자발적으로 참여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 “어머니들이 신청하시거나(실무자A)”, “아내가 가보라고 해서 왔는데요(실무자B)”처럼 부인의 강권이나 권유에 의해 아버지교육에 참여하였다.

“와이프가 이런 교육있다고 한번 가보라고 해서” (아버지G)

“처음에 나와서 다들 저랑 같은 마음이었던 같아요. 대부분이 와이프 등 떠밀려서 나온 거구. 한 두 분정도가 자기가 자발적으로 나온 분들이 계시고. 그러다가 일 때문에 못나 오다가 다시 나오고 하면서” (아버지F)

2. 아버지교육 참여 후 변화 : “조금 깨우치게, 돌아볼 수 있게”

아버지들은 교육에 참여하면서 아버지 교육에 의미를 발견하게 되었고 수동적인 참여에서 능동적인 참여로 변화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그 과정에서 아버지로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자녀와의 관계, 배우자와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1) 교육의 의미 발견

아버지들이 부인의 권유로 수동적으로 교육에 참여했지만, 교육에 참여하면서 교육 참여에 대한 열의가 생겼다.

“한 번인가 빠졌던가? 오면 좋다는 생각이 있다 보니까 진짜 바쁘신 분은 못 오는 경우도 있지만 자기 상황에 맞게 오더라요” (아버지A)

“그렇지만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 보면 뭔가 모르겠지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구.나가고 싶다고 몸에서 약간은 우리나라오는 것 같아요” (아버지F)

아내에게 등 떠밀려서 나왔지만 계속적으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힘은 아버지들이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은 마음이었다.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은 마음과 자신의 현실에서의 모습 간에 괴리를 느끼면서 교육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도움을 받고 싶은 마음이 여러 가지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교육에 참여하도록 이끌었다.

“저도 올해 마흔 둘인데 올해 처음 이런 걸 접해봤으니까. 그러면 평생 동안 못 접해본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아버지 한 명이 바뀜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 손실이 줄어들 텐데 하는 생각이 들죠.” (아버지F)

“저처럼 40대 중반 아빠들은 쑥스러워하는데 이런 교육으로 잘 유도가 되면 서로 간에 의견공유가 되고 그런 것들이 자기가 몰랐던 제가 잘하는 것 같아도 젊은 아빠들이 자연스럽게 아이들에게 하는 것을 보면 배울 게 있거든요.” (아버지A)

‘뭘 해도 더 괜찮은 걸 해주면 좋은데 뭘 해줘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답답해하다가 우연한 기회에 아내의 권유로 참여하게 되어 아버지 교육을 접하게 되면서 아버지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체감하면서 자발적으로 ‘나가고 싶다’는 마음으로 변화되었다. 아버지교육 프로그램 참여는 아버지들에게 다른 아버지들과 함께 아버지 됨에 관련된 다양한 문제에 대해 학습하고 토론하며, 부모가 됨으로써 생기는 죄절감, 불안, 분노 등에 대해서도 서로의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McBride, 1991)한다. 이러한 경험은 아버지들로 하여금 좀 더 적극적으로 주체적으로 아버지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게 만드는 동기가 되었다.

2) 달라지는 계기

아버지교육을 경험한 아버지들은 처음에는 ‘아내가 권해서’ 시작했지만 교육을 받으면서 ‘조금씩 깨닫게’ 되었고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자녀와의 관계나 부인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것을 느꼈다고 하였다. “아버지들께서 아버지교육 참여가 쉽지는 않았지만 교육을 받고나서는 좋았다고 하신다(실무자B)”고 하였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생각이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아버지A)

“근데 4,5,6회 지나가면서 보니까 아 ~ 조금씩 깨닫게 된다고 해야 할까요? 배우는 게 있다는 것이 있다는 것을, 그 사이에 쌓여왔던 것인지 깨닫게 되는 것이 있더라구요. 내 아버지와 나와 관계, 나 자신, 자녀들에게 아버지인 나, 이런 부분들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느꼈죠. 뭐 크게 와 닿는 그런 게 아니라 조금 깨우치게, 돌아볼 수 있게 하는 기회를 주었다고 할까” (아버지F)

“다른 사람들, 선생님 이야기 들으면서 우리 애들 이렇게도 볼 수 있구나. 관점의 변화랄까. 다른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할 수 있구나. 저와 비슷하게 생각하는 아버지들도 있고 저와 비슷하게 자라온 아버지들도 있고 다르게 살아오신 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비교해 나도 한번 이렇게 해볼까 다른 걸 내가 좀 더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 이후로 집에 가서 애들한테 좀 더 너그러워졌다고 해야 할까 좀 더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나” (아버지A)

아버지들은 교육에 참여하면서 얻은 가장 큰 효과로 자녀와의 관계증진을 꼽고 있었다. 자녀와의 관계 증진의 출발은 아버지 자신에 대해 돌아보고, 다른 아버지와 자신을 비교해 보는데서 출발하고 있다. 아버지들이 자신의 역할 수행에 대해 반성적으로 사고하는 경험은 기존의 자신의 아버지 역할에 대한 인식 전환을 가져온다(정계숙, 고은경, 하은실, 2012), 이러한 경험은 아버지 자신을 되돌아보고 역할에 대한 의무감, 압박감이 아닌 아버지 자신을 위해서도 적극적인 아버지 역할 수행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아버지 교육 참여는 “엄마들이 짜 놓 계획에 아빠는 도와주는 정도”의 수동적이고 도구적 역할에 머물러 있었던 아버지들을 좀 더 주체적으로 아버지 역할을 하기 위해 한 걸음 나아가도록 하였다.

3) 노력하는 모습

아버지들은 아버지교육 참여이후 아이들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실천하려고 노력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아버지들은 아버지교육 참여 이후 달라진 자신의 모습으로 인해 아이들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아이들이 자신을 대하는 모습이 달라졌다고 하였다.

“첫째가 한창 사춘기라서 난 좋게 대화를 하려고 하는데, 대화하다가도 한마디에 무너지고 그랬죠. 그전보다는 조금 더 참고 들어주려고 하고 아이의 생각을 이해하려고 하고 노력하려는 계기는 되었죠.” (아버지A)

“아이들을 이해를 못하고 화를 많이 냈지요. 이해를 못하니까. 그게 좀 지나고 특히 이번에 8개월 지나면서 노력하면서 조금씩 바뀌었다고. 아무래도 좀 더 들으려고 하고 화내고 열내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참아지고 그랬던 것 같고. 뭐라고 할까 좀 침착해졌다고 할까?” (아버지F)

“교육을 받으면서 바뀐 것은 뭐냐 하면 이론적으로 아버지가 아이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아이 이야기를 들어줘야 되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이가 어떤 마음의 상태인지, 아이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교육을 좀 배우고 아이와 가장 가까운 언어는 말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허그라든지 그런 것들도 끈끈한 결속을 준다 이런 것들을 많이 배웠어요.” (아버지G)

“어떻게 해야 되겠다 생각은 하는데 실생활에서는 실수도 많이 하죠. 소리가 지르게 되고 그렇지만 나름대로 생각이 정리가 되면서 변화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부부간에도 일상적인 대화를 하는 게 아이들이 이야기나 부부간에 대화를 하더라도 대화의 소재가 빈곤하지만 끄집어내서 이야기를 하다보면 다양한 대화도 생기고” (아버지 A)

<표 2> S 건강가정지원센터 아버지 교육 평가 설문지

내가 생각하는 나의 달라진 점은?	아내가 말하는 나의 달라진 점은?	아이들이 말하는 나의 달라진 점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들과 대화 ○ 관계 부드러워 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들과 소통, 어색하던 관계가 서로 어울리는 관계로 좋아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많이 놀아주고 더 이해심이 많아지고 자상해졌다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들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실천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빠가 있으면 아이들이 더욱 행복해하고 표현도 잘해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녁에 함께 놀이와 책 읽기 많이 해요. 시간 정해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들에게 화를 더디 내는 법을 배웠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heer up하는 아빠 모습이 보였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히 물어보진 않았습 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썄요. 노력은 했는데 아직도 아이와 가까워지는 게 쉽지 않네요. 그래도 이런 프로그램 덕에 저를 뒤돌아보고 아이의 입장과 생각을 보려고 이해하려고 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름 노력했는데 더 많은 참여와 관심을 요구 하네요. 그래도 가정의 안정과 화목을 위해 노력하는 하는 건 인정하겠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슬프게도 아직 참여가 적어서 인지도 모르겠네요.

실무자들은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가 달라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실

무자 A는 아버지교육 참여자들에게 교육후 교육평가설문지를 작성해보도록 하였는데(<표 2>), 이 평가설문지에 나타난 소감을 통해서도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교육을 통해서 자녀양육에 도움이 되고 좀더 아이들이랑 잘 놀아줄 수 있을 것 같다. 친한 아빠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반응(실무자 B)”을 볼 수 있었다고 하였다. “아버지들이 매달 의무적으로라도 아버지 교육에 참석하면서 아버지들이 굉장히 많이 아이와의 관계에 노력을 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였고, 어머니들은 아버지들이 여기 가는 것만으로도 우선 마음의 위안을 받는다(실무자 A)”고 하였다.

이러한 아버지의 변화가 어머니, 자녀들, 가족 전체 관계의 변화로 이어졌다고 하였다. 아버지들은 자녀와의 상호작용에서 자녀가 보이는 반응을 통해 자녀를 키우는 보람과 기쁨을 느끼며 자녀양육에 많이 참여할수록 아버지-자녀 간 관계가 향상되고 아버지로서의 자신감과 만족감도 커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권혜진, 2010; 장석경, 이지현, 2008)에 자녀와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기위해 노력하면서 자녀와의 관계개선 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한 만족감도 증가하면서 가족관계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3. 아버지교육 참여의 어려움과 바램 : “여건이 안되는 경우가 많아서”

아버지들은 아버지교육 참여가 쉽지만은 않았지만 자신이 경험을 해보니 아버지교육을 한번이라도 접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끼면서 우선 아버지들의 상황에 맞는 교육기회들이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교육받은 내용을 막상 실천에 옮기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체험활동식 교육을 원하였다. 아버지들이 인식 전환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들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교육이 필요하고 자녀의 연령이나 성별에 따라 아버지들에게 필요한 정보나 양육기술을 체험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기대하였다.

1) 시간을 내서 교육 참여하기가 어려움

아버지교육의 필요성도 잘 느끼지 못했던 아버지들이 아버지교육을 지속적으로 받으면서 아버지 역할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느끼고 있었다. 그렇지만 아버지교육 참여 아버지들, 실무자들 모두 아버지들이 시간을 내서 교육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고 하였다. 아버지 교육에 참여하는 것도 어렵지만 아버지들 아이들이랑 지내는 시간이 적다고 하였다.

“이런 기회가 좀 더 많으면 어느 가정에 모든 아빠들이 가정에 잘 하려고 하면은 불행한 가정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버지F)

“마음은 앞서나 주중 시간이 안되는 경우가 많았고, 못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직장사정으로 시간내기가 어려워서” (아버지F)

“자영업을 하는데 직업상 교육에 매번 참여하기 어려웠어요.” (아버지A)

“프로그램이 한 달에 한번이면 토요일에 하는 것도 나쁘지 않구요. 다만 준비하시는 분들이 힘들어하실 수도 있지만 평일에 못나오더라도 토요일에는 나올 수 있으니까” (아버지A)

아버지들은 많은 아버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간을 조정하거나 교육 기회를 자주 마련하면 좋겠다고 하였다. 아버지교육 프로그램 실시에 대한 요구도 조사결과(김진희, 정희연, 2005; 송혜림 외, 2010; 홍길희, 황정해, 2006)에 따르면 아버지 참여하려는 태도는 높은 편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아버지들도 아버지 교육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아버지들의 인식변화와 교육참여 노력과 같은 개인적인 차원의 변화도 필요하지만 아버지들이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을 내는 것에 대해 허용적이지 않은 일 중심적인 사회문화적 여건의 변화가 절실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이는 아버지들이 근무하는 기업의 조직 분위기가 가족 친화적일수록 아버지들의 일-가족 갈등이 낮아지고, 일-가족 갈등이 낮을수록 자녀 양육에 좀 더 참여하는 경향을 보였고 아버지들의 근무 시간이 적을수록 그들이 느끼는 일-가족 갈등이 낮아지고, 일-가족 갈등이 낮을수록 자녀 양육에의 참여가 증가하였다는 이숙현과 권영인(2009)의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다.

“아빠들이 야근을 좀 덜 해야겠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해요. 아이들이랑 뭘 하고 싶어도 야근 때문에 할 수가 없다. 구조적으로 야근이나 이런 것들을 줄여주는 방안이 나와야 한다는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해요.” (아버지G)

“사회적으로 야근 근절이나 아빠들이 아이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반이 마련이 되어야 될 것같고” (아버지F)

“직장인들도 아버지교육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아빠들이 상대적으로 정보도 어둡고. 아

빠들은 서로 이야기도 안하고 정보도 없고 뭘해야 될지도 모르고 마음은 있는데 여건은 안되고, 사회적으로도 여자들 보다는 남자들에게 야근을 더 많이 시키기 때문에... 여자들이 좀 일찍가는 것은 아이들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지만 남자들은 안 통하거든요. 사회적으로 야근 근절이나 아빠들이 아이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반이 마련이 되어야 될 것같고, 기반이 마련이 되었으면 뭘했으면 좋을 지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해 교육을 해주시면 좋죠.” (아버지G)

2) 교육내용을 실천에 옮기기 어려움

아버지들은 강의 위주의 교육은 집중하고 흥미를 갖기에 어려움이 많고 교육내용을 현실에서 실천에 옮기는 게 어렵다고 하였다. 아버지들은 교육을 통해 배운 내용을 직접적으로 아이들과 해볼 수 있는 구체적인 활동이나 자녀와 함께 하는 활동이 좋다고 하였다. 아버지들이 교육에 흥미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아버지들의 특성이나 요구를 반영한 교육내용이나 교육방법이 마련되기를 기대하였다.

“같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니까 도움이 되긴 하는데 실제 아이랑 놀 때는 잘 생각이 안 났어요.” (아버지G)

“작년에는 주로 실내에서 처음에는 아빠들 대상으로 이론 교육, 아이들하고의 놀이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금년에는 야외에서 하는 활동이 많았고 호응도는 실내에서 하는 것보다 바깥에서 하는 게 좋았어요. 단순히 아이랑 노는 것 뿐만이 아닌 야구 관람도 좋았고 아이랑 뭘 만드는 것도 좋았고 트리 만드는 것, 바깥에서 아이들랑 산책하는 것도 좋았고 아빠들이 아이들과 같이 접촉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선호했구, 참여도도 그제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아버지A)

실무자A는 “아빠의 역할의 중요성, 한국사회에서 남성이 가족생활에 어떻게 참여해야 하는지 강의를 통해서 얻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자녀 양육에 참여하는데 기술이 부족해서 어려워하신다”고 하였다. 그래서 “자녀를 매개를 해서 자녀와 함께 체험활동을 했더니 아빠를 센터까지 유도하고 참여하는데 동기를 부여하는 효과가 있어서 아버지들의 호응이 좋았다”고 하였다. 실무자 B도 “아버지들은 강의보다는 자녀가 함께 할 수 있는 상호작용을 선호하신다”고 하였다. “아버지들이 아이들이랑 놀아 줄 시간이 부족하니까 스킨십을 도와주는 간단한 마사지를 가르쳐 드렸던 키즈 마사지가 반응이 좋았다”고 하였다. 실무자 A에 따르면 “체험활동도 남성의 특성을 반영하는 체험활동을 해야 반응이 높다”고 하였다.

서 “아버지들이 관심 있어 하는 스포츠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참여율이 높았다”고 하였다. 이러한 실무자들의 보고에 따르면 아버지교육의 내용과 방법은 아버지들의 상황과 특성, 요구를 반영했을 때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아버지들의 교육참여가 자발적이기보다는 부인의 권유에 의한 수동적인 참여가 많기 때문에 “아버지들의 흥미를 어떻게 끌어 들이는냐가 제일 중요하다(실무자A)”고 하였다.

아버지들은 아버지 교육의 내용이나 방법적인 면에서 아버지들의 상황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져서 교육받은 내용을 실천해볼 수 있기를 희망하였다. 아버지들은 자녀의 연령이 비슷하면 정보공유가 쉽게 되고 관심사나 필요로 하는 교육내용도 비슷하기 때문에 자녀 연령대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지면 좋겠다고 하였다.

“아이들이 나이차가 많이 나니까 그런 대화가 잘 안되는 거지요. 서로 어린 아이 아빠 들끼리는 서로 대화가 되는데. 저는 안되고, 아버지들이 아이들이랑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한데 적절한 것을 하면서 보내면 좋겠다. 뭘 해줘야 되는지? 아이들 연령에 따라 어떻게 해야 할지 이런 것도 필요한 것 같구.” (아버지G)

“대화법도 될 수 있겠고, 뭐 자녀들을 이해할 수 있는 것. 자녀와 가까워 질 수 있는 거, 아니면 언젠가 겪게 될 사춘기 자녀들이 어떻게 사춘기를 이겨나갈지” (아버지F)

영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들의 경우에는 직접적인 돌봄이나 놀이방법 등에 대한 관심이 높지만 아동, 청소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경우에는 자녀와의 원활한 의사소통 방법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청소년자녀들은 부모와 대화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고(장재홍, 김태성, 김현주, 이호준, 2000) 특히 아버지와의 대화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아버지 - 자녀간의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자녀가 아버지를 심리적인 보호자로 느끼고 어려운 상황에 접했을 때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멘토의 역할을 하기 어렵다. 따라서 영유아교육기관 중심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는 아버지교육을 확장하여 자녀연령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IV.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아버지교육에 참여한 아버지교육에 참여한 아버지들의 경험을 통해 아버지가 교육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어떤 경험을 하였는지, 아버지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

해 살펴보고, 이를 통해 아버지 교육의 의미와 효과를 파악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버지들의 내면에는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은 마음, 아버지 역할에 대한 고민 등이 자리하고 있었다. 아버지상에 대한 조사결과들을 보면 자녀연령과 상관없이 모든 집단에서 아버지들은 이상적인 아버지상으로 “친구 같은 아버지”를 꼽고 있었고(김낙홍, 2011; 송혜림 등, 2010; 조형숙 등, 2008), 본 연구의 참여자 아버지들 역시 ‘자신의 아버지와는 다른’ 아버지가 되기를 희망하였다. 그러나 현대의 아버지들은 전통적인 부양자 역할에 대한 요구도 여전히 강력하게 받고 있기 때문에 문화적인 아버지 됨과 실제 아버지 행동의 불일치를 경험하고 있었다(김혜영 등, 2008; 전연우, 조희숙, 2013).

이상적 아버지상과 현실적인 자아상과의 괴리는 ‘친구 같은 아버지’가 되는 방법을 잘 모르고 있을 때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대부분의 아버지들은 ‘친구 같은 아버지’에 대한 경험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교육기회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자녀와 친밀한 관계 형성에 실패하고 있다. 아버지가 성장했던 가족과의 경험은 두가지 방식으로 아버지 역할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다(이영환, 2001). 한가지 방식은 어렸을 때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받은 양육경험을 모방하여 현재 자신의 자녀양육을 하는 것이다(Jain, Belsky, & Crnic, 1996; Snarey, 1993). 이와는 대조적인 방식은 어렸을 때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받은 양육 경험에 대해 만족하지 못할 때 자신의 아버지와 관계를 모델링하기보다는 성인이 되어 자신의 자녀를 양육할 때는 자신의 아동기의 부정적 경험을 보상하기 위해 긍정적인 양육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Pruett(2000)는 아버지 역할은 개인 및 환경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아동기의 부정적 경험을 재구성하는데 있어서 남성의 아버지 역할 재구성이 여성의 어머니 역할 재구성보다 쉽다고 하였다. 따라서 ‘내 아버지와 다른 아버지가 되겠다’는 열망은 강력한 교육 참여의 동기로 작용할 수 있으며 아버지 교육이 아버지 역할 수행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아버지들은 아버지역할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하였다. 아버지 역할에 대한 자신감은 아버지 역할을 성공적으로 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나타내는 내는 것으로 자신의 역할에 대한 만족도와는 다르다. 실제로 자신의 현재 아버지 역할에 대해 만족감을 나타낼 수는 있지만 자신이 그 역할을 성공적으로 잘 하고 있는가라는 평가와는 다르다. 아버지역할효능감이란 아버지로서 자녀문제를 다루는데서 느끼는 자신감의 정도, 양육기술, 문제해결력에 대한 자기평가를 의미한다. 아버지역할에 대한 자신감은 일상생활에서 부딪치는 문제 상황에서 자녀의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때 증대되기 때문에 양육참여 경험과 관련이 깊다(김낙홍, 장소정, 2012; Rogers & White, 1998). 양육에 많이 참여하는 아버지

들은 자녀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녀를 다루는 법을 익힘으로써 부모 역할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고 자신을 부모로서 유능한 존재하고 지각하는 경향이 있다. 연구참여자들처럼 수동적인 아버지 역할을 할 경우 양육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이 적고 부모로서 의사결정을 내릴 기회가 많지 않기 자신이 부모로서 적합한지 돌아볼 수 있는 기회도 적기 때문에 아버지 역할에 대한 자신감도 낮을 수밖에 없다. 수동적인 아버지 역할 수행은 자녀가 연령이 높아지면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장재홍 등, 2000).

둘째, 아버지들은 교육에 참여하면서 아버지 교육의 의미를 발견하면서 능동적 참여로 변화하게 되었고 자녀와의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아버지교육을 경험하면서 어렵풋이나마 느끼고 있던 아버지 교육의 필요성을 체험하게 되면서 아버지들은 아버지교육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많은 아버지들이 교육을 접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아버지의 교육참여는 자녀와 아버지 간의 관계 증진의 중요성(Perry, Harmon, & Leeper, 2012)에 대해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아버지들은 아버지교육 참여이후 자녀와의 상호작용의 빈도와 내용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였고 여기에서 비롯된 만족감이나 자신감이 자녀관계, 부부관계, 가족관계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는데, 이러한 경향은 아버지 교육 참여 효과 검증 연구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아버지교육에 참여경험은 아버지가 자녀에게 긍정적인 강화를 사용하고 온정을 표시하며 제한적 행동을 덜 하고 자녀의 발달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습득하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박영충, 1985)으로 나타났다. 유아기 자녀를 둔 저소득층 아버지를 대상 웹 기반 아버지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아버지의 양육활동 참여수준이 더 높아졌고 아버지-자녀관계가 긍정적으로 변화하였고, 양육자신감이 높아진 것(권기남, 2012)으로 나타났다. 외국의 선행연구에서도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가 아버지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자녀들의 행동문제 발생을 감소시키고(Helfenbaum-Kun & Oritz, 2007) 아버지의 양육참여 수준을 높이는 것(Taskin & Erkan, 2009)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자녀의 증가된 긍정적이고 온정적인 상호작용은 자녀의 사회적 기술 발달, 사회적 성취에 긍정적인 영향(Webster et al., 2013)을 준다. 아버지교육은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물질적 자원뿐만 아니라 정신적 자원 제공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해주고(Snarey, 1993), 아버지가 자녀의 삶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시작을 든든하게 뒷받침하는 역할(Ringsmose, 2012)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자녀의 욕구 충족과 긍정적인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하는 적극적인 아버지 역할을 하는 것이 자녀에게 뿐만 아니라 아버지들에게 매우 중요한 생산적인 일 중 하나이다(Dollahite et al., 1997; Palkovitz, 1997). 즉 주로 직업생산성만을

추구하던 아버지들이 아버지교육 참여를 계기로 양육생산성의 중요성을 느끼게 되면서 성인기에 발달시켜야 할 직업생산성과 양육생산성간의 균형을 찾고자 하는 노력을 하는 것으로 자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아버지 자신의 성인기발달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아버지교육프로그램에 참여 경험이 있는 집단은 참여경험이 없는 집단에 비해 아버지역할과 직장성공 간의 상대적 중요도에 대한 인식에서 아버지역할을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송혜림 등, 2010)이 나타난 것은 아버지교육이 아버지의 성인기 발달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보여준다.

셋째, 아버지들은 현실적인 여건 상 아버지교육에 참여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하였다. 아버지들은 아버지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을 마련해주고 아버지들의 상황에 맞고 현실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교육내용과 방법으로 아버지교육이 이루어지길 희망하였다. 아버지들은 교육경험이 어떤 식으로든지 자녀양육과 가정에 도움이 되므로 많은 아버지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아버지교육 프로그램 실시에 대한 요구도 조사결과(김진희, 정희연, 2005; 송혜림 등, 2010; 홍길희, 황정해, 2006)를 살펴보면 아버지교육 참여 경험은 높지 않으나 참여하려는 태도는 높은 편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아버지들의 내면에는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은 열망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현실에서 아버지들에게 아버지 교육기회가 충분히 제공되고 있지 않고 교육에 대한 정보도 부족하고 교육참여가 어려운 사회적 여건 때문에 아버지교육 참여 경험이 있는 아버지들은 매우 적은 실정이다. 아버지교육에 참여한 아버지들이나 교육을 진행한 실무자들이 아버지교육에서 어려운 점으로 꼽는 것이 아버지들이 직장 여건으로 인해 교육 참여 자체가 어렵다는 것이다. 일-가정 양립의 장애요인과 아버지 역할 수행의 장애요인으로 직장요소가 우선순위로 나타나고 있어서(김낙홍, 2011; 송혜림 등, 2010; 이숙현, 장영인, 2009), 아버지 개인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회구조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교육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과 함께 아버지 교육에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 마련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아버지들은 아버지교육 경험이 일상생활에서 바로 실천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길 희망하였다. 아버지 교육의 내용적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아버지 역할 수행을 위해 필요한 가치관교육과 함께 자녀의 발달특성에 적절한 구체적인 자녀양육 기술 교육, 자녀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정보제공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아버지들은 자녀의 연령에 맞는 발달 관련 지식, 아버지와 자녀간의 상호작용 증진 기술, 부부간 및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기술 등을 배우기를 희망하며 자녀양육의 어려움 등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사회적 지원체계의 구축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연령에 맞는 교육이 이루

어지길 희망하였는데, 영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와 사춘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자녀에 대한 관심영역이나 아버지 역할은 다를 수밖에 없다. 아버지들의 교육에 대한 욕구를 고려하지 않고 일반적인 아버지 교육을 실시할 경우 아버지들의 참여 동기도 낮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교육의 실효성 역시 떨어질 수밖에 없다. 교육이 보다 구체적인 효과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영아기, 유아기, 청소년기 자녀를 둔 아버지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을 단계별로 개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아버지는 자녀의 성장발달에 따라서 변화하고 적응해야 하는 존재이므로 자녀의 발달단계에 따라 아버지로서 수행해야 하는 아버지역할이 다를 것이며 아버지 자신도 각기 다른 어려움을 느끼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것처럼 아버지들은 자녀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바람직한 아버지 역할에 대한 고민이 더 증가하는데 아버지교육은 주로 영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들을 주요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김진희, 정희연, 2005), 아동기, 사춘기 자녀를 둔 아버지들을 교육이 좀 더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그밖에도 일과 가족 양립의 중요성, 부부관계, 갈등과 스트레스 관리 등 결혼 및 가족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한 내용에 대한 요구도 증가하고 있다(신용주, 2009). 아버지교육은 부모-자녀관계 뿐만 아니라 부부관계 및 가족관계에도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특히 현장실무자들은 건강한 가족 안에서 가족 개개인들은 건강한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를 맺고 개개인의 삶의 질도 향상될 수 있다. 특히 남성의 부모역할 만족도는 여성에 비해 더욱 상황적이며 결혼만족도가 높을 경우 아버지 스스로 부모만족도를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아버지 역할 참여는 결혼 및 가족생활의 전반적 맥락과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부부관계 교육이 함께 이루어져야 남성이 아버지역할 효능감과 만족감도 향상될 수 있다.

사회적 변화에 따라 아버지 역할요구가 변화하고 있고 이에 따라 아버지들은 아버지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교육기관, 지역사회기관 등을 중심으로 아버지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직 아버지들이 아버지교육을 접할 기회가 현저히 부족하고 아버지들이 교육에 참여하는데 있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아버지교육에 참여한 아버지들을 통해 확인한 아버지교육의 효과와 한계점을 파악하여 이를 바탕으로 아버지교육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한다.

첫째, 아버지들이 한번이라도 아버지교육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버지 교육을 접해보면 아버지들은 아버지교육의 필요성과 아버지 역할에 대한 인식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현실적인 여건상 아버지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참여가 어려우므로 의무적으로 교육기회를 갖도록 하는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 예를 들면 직장의 사내교육으로 아버지교육을 하도록 권장하고, 아버지들이 가족과 자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이를 실천한 기업에 가족친화기업 인증이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등도 고려해 볼만 하다. 아버지 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아버지 개인의 적극적인 참여노력과 아버지 교육 실무자들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아버지 교육의 참여가 가능한 가족친화적 사회문화, 직장문화 조성이 필요하다.

둘째, 아버지교육 대상 집단층이 너무 넓은 경우 개별대상자의 가족생활주기, 가족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 제공에 한계가 있고, 아버지교육 내용이나 아버지교육 효과 역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교육이 보다 구체적인 효과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영아기, 유아기, 청소년기 자녀를 둔 아버지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을 단계별로 개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가족생활주기에 대상자의 요구, 자녀의 연령과 발달적 특성을 고려하여 초점교육 대상 집단을 설정하고 이에 맞는 프로그램의 운영이 필요하다. 가족은 계속 성장하기 때문에 가족생애주기별로 아버지교육을 구성하고 실시한다면 자녀의 성장에 따라 다음 프로그램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아버지교육의 궁극적 목표는 가족의 건강성 향상이라고 할 수 있다. 남성의 부모 역할 만족도는 여성에 비해 더욱 상황적이며 결혼만족도가 높을 경우 아버지 스스로 부모 만족도를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아버지 역할 참여는 결혼 및 가족생활의 전반적 맥락과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부부관계 교육이 함께 이루어져야 남성이 아버지 역할 효능감과 만족감도 향상될 수 있다. 따라서 아버지교육은 아버지 자신에 대한 이해에서 출발해서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 가족관계 등 관계적 접근에 초점을 두어 궁극적으로는 가족의 건강성 향상을 지향해야 한다. 적극적인 아버지 역할이 자녀에게 뿐만 아니라 아버지 자신과 가족 전체의 건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넷째 아버지들에게 아버지교육에 대한 교육부담을 덜고 교육참여 동기를 유발하고 교육내용을 실제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버지교육의 방법적 측면에서도 교육내용에 대한 강의, 자녀나 부부, 가족들과의 체험활동, 심리검사나 개인 및 부부상담 등과 같이 강의, 문화활동, 상담활동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아버지교육이 강의위주로 진행되는 경우 교육당시에는 교육내용에 대해 공감하지만 이를 일상생활에서 실천으로 옮기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렇다고 체험활동 위주로 교육을 진행할 경우 단순한 여가활동에 머무를 수 있기 때문에 체험활동으로 교육이 진행될 경우에도 아버지교육 또는 가족교육 차원의 접근이라는 것을 교육참여 아버지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성격유형검사나 심리검사 등을 통해 아버지 자신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이를 바탕으로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아버지교육이 일회적 교육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교육을 체계화하여

아버지들이 교육의 필요성에 따라 선택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아버지교육 매 뉴얼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오프라인 교육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교육적 접근이 가능 하도록 하는 것(권기남, 2012)도 필요하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자 료의 수집이 제한된 연구참여자와 면접횟수 및 면접시간으로 이루어져 좀 더 풍부한 연구 자료를 산출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아동기, 청소년기 자녀를 둔 아버지로서 아버지교육에 여러번 적극적으로 참여한 경험이 있는 연구참여자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연구참여자와의 직접 면접에만 의존한 연구자료의 수집 방법도 본 연구의 한 계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연구결과는 아버지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아버지들의 경험을 분석한 결과로 아버지교육의 긍정적 효과에 초점을 두었다는 한계가 있다. 연구참여자에 아버지 교육에 소극적으로 참여하거나 중간에 탈락한 아버지들 을 연구참여자로 포함시키고 면접 외에 이메일, 저널쓰기 등의 다양한 자료수집방법을 병 행한다면 본 연구결과의 적용성이나 전이성 면에서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 게 된다면 본 연구에서 제시된 아버지교육 참여 경험에 관한 연구가 아버지교육을 실행하 는 기초자료로 더 의미있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 강기정, 이윤정(2010). 다문화가족의 아버지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8(4), 89-101.
- 권기남(2012). 유아기 자녀를 둔 저소득층 가정 아버지의 자녀양육 역할능력 향상을 위한 e-learning 기반 아버지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연구. **아동교육**, 21(1), 5-20.
- 권혜진(2010). 영유아기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아버지 역할만족도와 역할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자녀와의 친밀감의 매개효과 탐색. **한국보육학회지**, 10(4), 87-106.
- 김낙홍(2011). 바람직한 아버지의 역할과 역할수행의 어려움, 사회적 지원에 대한 고찰. **미래유아 교육학회지**, 18(2), 79-98.
- 김낙홍, 장소정(2012). 영유아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 아버지의 양육태도 및 양육참여, 양육효능 감에 관한 연구. **유아교육학논집**, 16(4), 121-138.
- 김영천(2008). **질적연구방법론**. 서울: 문음사.
- 김윤옥, 박성미, 박소영, 손미, 신경숙, 이은화, 정명화, 허승희, 황희숙(2009). **질적 연구 실천방법**. 서울 : 교육과학사.
- 김정원, 김유정(2007). 영유아기 자녀를 둔 우리나라 아버지 관련 연구 경향 분석: 1980년대 이후

- 학술지논문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5(5), 25-38.
- 김정환(2012). 한국 30대 남성들의 아버지상과 아버지 역할 실천방식에 대한 연구.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진희, 정희연(2005). 아버지 역할 교육 프로그램 요구도 조사-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아버지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17(2), 11-27.
- 김혜영, 황정미, 선보영, 김동기(2008). 남성의 부성경험과 갈등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박영충(1985). 유아교육기관의 아버지 교육 프로그램 효과에 관한 실험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우희(2004). 아버지 교육이 가족 기능 변화에 미치는 영향. 강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서은주(2012).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한 아버지교육 프로그램 고찰. **부모교육연구**, 9(2), 35-51.
- 송혜림, 박정윤, 고선강, 권혜진, 진미정(2010). 가족친화환경 측면에서 본 남성의 아버지 역할 수행.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4(4), 341-361.
- 신용주(2009). 반응적 아버지교육 프로그램의 모형개발에 관한 연구. **Andragogy Today**, 12(3), 47-72.
- 이숙현, 권영인(2009). 기업의 가족 친화적 문화와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 일-가족 갈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21(1), 1~28.
- 이슬기, 전귀연, 김수경(2007).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일-아버지 역할 갈등과 양육스트레스가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5(1), 35-49.
- 이영환(2001). 생산적인 아버지 노릇 및 양육방식에 관한 비교문화적 연구: 한국과 미국아버지를 대상으로. **아동학회지**, 23(1), 139-151.
- 전연우, 조희숙(2013).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자아상 연구. **한국보육지원학회지**, 9(3), 343-363.
- 장석경, 이지현(2008). 아버지의 부모효능감과 양육참여도에 따른 유아기 자녀의 자기능력에 대한 지각. **열린유아교육연구**, 13(2), 73-89.
- 장재홍, 김태성, 김현주, 이호준(2000). 부모교육프로그램 연구: 아버지의 자녀양육참여현황과 아버지교육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제언.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 정계숙, 고은경, 하은실(2012). 대상관계 접근의 반성적 부모교육과정에서 나타난 아버지의 부모역할 수행에 대한 반성적 발화의 의미. **아동학회지**, 33(6), 207-225.
- 조형숙, 김지혜, 김태인(2008). 영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가 추구하는 아버지상에 대한 연구. **유아교육학논집**, 12(1), 239-264.
- 한영숙(2006). 아버지의 놀이참여와 유아-아버지관계 및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미래유아**

교육과학회지, 13(2), 189-212.

홍길희, 황정해 (2006). 자녀양육스트레스 및 아버지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영유아기자녀를 둔 아버지를 대상으로. **아동학회지**, 27(3), 301-317.

홍길희, 황정해 (2007). 아버지됨 향상을 위한 아버지 교육프로그램 개발연구. **유아교육·보육행정연구**, 11(2), 6-24.

황정해(2006). 아버지됨의 경험이 남성의 성인기 발달에 미치는 의미탐색.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2), 43-60.

Ashbourne, L. M., Daly, K. J., & Brown, J. L. (2011). Responsiveness in father-child relationships: The experience of fathers. *Fathering*, 9(1), 69-86.

Dollahite, D. C., Hawkins, A. J., & Brotherson, S. E. (1997). Fatherwork: a conceptual ethic of fathering as generative work. In Hawkins, A. J. & Dollahite, D.C.(Eds). *Generative fathering* . Sage Publication.

Helpfenbaum-Kun, E. D., & Oritz, C. (2007). Parent-training groups for fathers of Head Start Children: A pilot study of their feasibility and impact of child behavior and intra-familial relationships. *Child & Family Behavior Therapy*, 29(2), 47-64.

Ishii-Kuntz, M. (1994). Work and family life. *Journal of Family Issues*, 15, 490-506.

Jain, A, Belsky, J. & K. Crnic. (1996). Beyond fathering behaviors: Types of dad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0(4), 431-442.

Lincoln, Y. S., & Guba, E. G. (1985). *Naturalistic inquiry*. Beverly Hills,CA: Sage Publications.

McBride, B. A. (1991). Parental support programs and paternal stress: An exploratory study.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6, 137-149.

Merriam, S. B. (1998). *Qualitative research and case study applications in education*. San Francisco, CA: Jossey-Bass Publishers.

Palkovitz, R. (1997). Reconstructing “involment” expanding conceptualizations of men’s caring in contemporary families. In Hawkins, A. J. & Dollahite, D.C. (Eds). *Generative fathering* . Sage Publication.

Perry, A. R., Harmon, D. K., & Leeper, J. (2012). Resident black fathers’ involvement: A comparative analysis of married and unwed, co-habituating fathers. *Journal of Family Issues*, 33(6), 695-714.

Pruett K. D. (2000). *Fatherneed : Why father care is as essential as mother care for your child*. The free press.

Ringsmose, C. (2012). Social welfare and minding the achievement gap: A view from Denmark. *Childhood Education*, 88(3), 185-188.

- Rogers, S. J., & White, L. K. (1998). Satisfaction with parenting : The role of marital happiness, family structure, and parents' gender.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0, 293-308.
- Shawn, M., & Knudson-Martin, C. (2006). Father responsibility: Couple processes and the co-construction of fatherhood. *Family Process*, 45(1), 19-37.
- Shwalb, D W., Nakazawa, J., Yamamoto, T., & Hyun, J.-H. (2010). Fathering in Japan, China, and Korea: Changing contexts, images, and roles. In M. E. Lamb(Ed.), *The role of the father in child development* (5th ed., pp. 341-387). Hoboken, NJ: Wiley.
- Snarey, J. (1993). *How father care for the next generation: a four-decade study*. Harvard University Press.
- Taskin, N., & Erkan, S. (2009). The influence of father education programs on the levels of father involvement with children: an experimental study. *Hacettepe University Journal of Education*, 37, 136-148.
- Webster, L., Low, J., Siller, C., & Kist Hackett, R. (2013). Understanding the contribution of a father's warmth on his child's social skills. *Fathering*, 11(1). 90-113.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explore the meanings of fathers' experiences as they participated in educational programs for fathers. In-depth interviews with 3 fathers with children attending elementary school and middle school were implemented to examine their participation experiences in educational programs for fathers and their expectations for educational programs for fathers. The findings of this study showed that fathers wanted opportunities to carry out more active roles with their children instead of passive father roles. They learned interaction with their children and wives through participating in educational programs. The education programs impart a broader perspective and knowledge of father roles, and participation may encourage improvement of their relationships with their children and wives. They felt the importance of father roles in educational programs, which helps a father be a good father. But, they complained about harsh circumstances to participate in educational programs. So educational programs for fathers should be provided to all fathers that are geared to the level and need of each father. Further studies for more revelatory documentation were also suggested.

▶ *Key Words* : *educational program for fathers, participation experiences, father roles*

논문투고	2013. 08. 17.
수정원고접수	2013. 09. 29.
최종게재결정	2013. 10. 17.